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제469호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직접 면담’ 최선희 북한 외무상 환대한 푸틴, 북한 답방시계 빨리 돌아가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방러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직접 만나면서 그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 무기거래 등 북러밀착 움직임과 맞물려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최외무상을 반갑게 맞이했다. 푸틴 대통령은 인사를 나눈 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최외무상과 마주 앉아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앞서 이날 낮 최외무상과 회담한 세



푸틴과 악수하는 최선희

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것을 조정했다”고 운을 뗐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아를 찾는 외국 고위 인사 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푸틴 대통령이 접견한 타국 외교 수장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정도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지 약 4개월 만에 북한을 찾았다. 그는 옛 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 북한을 방문한 첫 러시아 최고지도자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논의 등 북러 밀착 가속화로 인해 무기 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부족해진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 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가시화하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두 개 지역의 전쟁으로 전세계 외교안보 지형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도 더욱 고착화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송원기 기자

북러 밀착 가속화, 무기거래 우려도 증폭…방북 현실화시 24년만 3월 러 대선 전후 기점…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 굳어질 듯

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옆에 앉았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최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에게 어떤 내용을 청취했는지, 최외무상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최외무상을 직접 만난 점 등에 비춰 최외무상의 방북 기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논의가 어느정도 무르익은 것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외무상은 외무장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있다고 확인하면서 상호 협의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북이 조만간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것 만으로도 북러 관계가 한층 깊어졌으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이 진전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다른 국가 외교 수장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뒤 9월에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했다. 10월에는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을 찾아 최외무상과 회담한 뒤 김 위원장도 만났다.

11월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료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12월에는 올레그 코제마크 연해주 주지사가 평양을 찾아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

이번에 최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만큼 이제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산재보상 올라잇!



신속 공정!

01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보상
- 업무상질병보상
- 보험급여지급

빠른 배우를 돋는!

02

요양 서비스

- 요양지원(치료)
- 재요양·추가상병
-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03

재활 서비스

- 의료재활
- 심리재활
- 직업재활

근로복지공단

**‘대중교통비 일부 돌려받으세요
K-패스, 두달 앞당겨 5월 시행**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 이윤호 기자

**‘병원 전체’에 간호사가 간병하는 서비스 도입
일부 병동만 적용했던 ‘중환자 외면’ 부작용 커**

보건복지부는 병원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껏 병원 내 일부 병동에 제공돼 왔으나, 앞으로는 병원 전체 단위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병원이 ‘경증 환자’만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되레 배제해 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맡는다. 상급 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서울 관악구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운영하는 이 병원의 경험을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 최규한 기자

文정부 출신 의원들 “文 전 사위 압수수색, 무도한 정치보복”

대검 “文정부서 시작된 수사…법원서 영장 발부받아 집행”

=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17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은 멎추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의원 등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전날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서 씨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겟에 전무이사



황희,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죄족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자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 수사 목적이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KBS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나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과잉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혜 채용 의혹은 전 정부 때 시작된 수사로 새로운 수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송원기 기자



인사말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경찰, ‘딸 스펙 의혹’ 한동훈 가족 고발 사건 불송치

대필작가 논문 게재·앱 출품 의혹 등 업무방해 무혐의 결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어 2021년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학술지 ‘ABC Research Alert’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것이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 했다.

경찰은 각 기관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심사 규정 등에 대해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 / 신승호 기자

했다.

경찰은 또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측이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를 담당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셰어리 팀이 대회에 제출한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규정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체가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 등 구체적 심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 딸이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아울러 그가 ‘부모 친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실련 “21대 의원 34명 공천 배제해야…72명은 철저검증 필요”

대표발의 건수·본회의 출석·사회적 물의 등 기준으로 자체 선정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1대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34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72명은 좀 더 철저히 자질검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과 부동산 과다 매입,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활동 등을 기준으로 했다면서 이 중 2개 기준에 종복해 이름을 옮긴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김태호·김희국·박덕흠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 1위로 각각 19.9%, 26.5% 결석률을 기록했으며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과 상장주식 보유, 박덕흠 의원은 상장주식 보유와 사회적 물의에 해당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1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31명이었다. 현역을 포함해 의원직을 상실한 21대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LIVE

수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부터 수출 관련 자금조달, 수출보험 가입, 수출대금 회수까지

K-SURE가 수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Ksure



신원식, 북GP 검증논란에 “당시 문서 존재한다…곧 진실 드러나”

KBS 라디오 출연…“북, 최신무기 생산 즉시 러시아 수출할만큼 어려워”

원석 국방부 장관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조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며지않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 관련 질문에 “지금 북한의 GP 복원 동향과 속도로 볼 때 지난 시설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때 당시 검증했던 결과, 문서 등이 현재까지 확인된 거론 대부분 있는 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측 파괴 GP 부실 검증 가능성은 신 장관이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처음 제기했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가열되자 9·19 합의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국방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



도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14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대해 '원뿔형'이라며 "2022년이 액체추진 미사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신규 개발 중인 고체추진체여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 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는 "공갈 위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잣은 '전쟁' 언급이 러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에 대해서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북한이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등 무기를 러시아로 대거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신 장관은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중 가장 신형이 소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과 600㎜ 대구경 방사포다. 이것 수십발, 거의 전량을 생산되는 즉시 러시아에 팔았다"며 "따라서 근거리형 전술유도탄도 전선에 배치하는 것 못지않게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북한이 만약 진짜 전쟁을 하려 한다면 필수적인 포탄 수백만발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겠느냐. 가장 성능 좋은 미사일을 생산 즉시 전량 수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의 심리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면 "그렇게 되면 가짜평화, 북한 입장 두둔하기, 북한에 펴주기 등 수십년간 북한에 대해 해온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준희 기자

검찰, 文 전 사위 압수수색 항공사 특혜취업 의혹 수사

경남 양산시 자택서 증거물 확보
항공사 실무진 소환 조사도

위였던 서모 씨를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9시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4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검찰

은 서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 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 소유한 타이스타겟에 전무이사에 취업 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항공 분야 실무 경험 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해 당시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사 실무진 등을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범위나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서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의 중진 공 이사장 인선에 관련한 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준식 기자

□ 좋아하는 일 찾기
□ 건강하기
□ 더 많이 웃기

새해 바라는 거 다해

꿈꾸는 일 다 이루는
행복한 2024년 되세요

LG



원불교 찾은 이태원 참사 전북 유가족

원불교 총부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 공포 도와달라”

이태원 참사 전북지역 유가족들이 16일 익산시에 있는 원불교 종암총부를 찾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유족들은 나 교정원장에게 참사 이후 1년간의 유가족 활동 기록이 담긴 책을 선물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거듭 당부했다.

나 교정원장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이 열반한 자녀를 위해서 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임을 국민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이를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이정수 기자

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수수료율 왜곡’ 논란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유통 점유율 공식 데이터 아니다”



쿠팡, 2분기 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보다 낮다면 11번가 등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가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쿠팡이 유통시장 점유율을 쿠팡 4%·신세계 5%로 제시한 데이터가 자사의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이달 3일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펼쳐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M카드·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덧붙였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 제기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판매수수료율과 함께 공개한 유통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은 당시 “쿠팡의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며 데이터 근거로 ‘2022년 리테일 시장 602조원 규모(유로모니터/여행·외식 포함)’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유로모니터는 “리테일·외식·여행 등 3개 카테고리 한국의 소매판매액을 합한 금액이 602조원이지, 유통시장 규모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쿠팡이 유로모니터를 인용해 제시한 시장 점유율은 우리의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이어 “국내 유통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02조원(세액 제외)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판매액을 모두 합산해 추산한 금액이며 해당 기준으로 보면 신세계 점유율은 13.4%, 쿠팡은 9.8%로 점유율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 배종훈 기자

野,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총선 투입…백범 사진도 내걸어

당 역사정의특위 공동위원장 맡은 30대…“尹정부, 독립운동사를 이념전쟁에 악용”



민주,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총선 투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4·10 총선에 투입할 '8호 인재'로 선정했다.

김 이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2010년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병무청은 김구 선생의 광복군 창설 공로를 인정, 4대가 국방에 헌신했다며 지난 2014년 김 이사 일가에 '병역명문가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전역 후인 2014년부터 방산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6년간 근무했고,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민주당

국가인재'로 영입돼 선거대책위 산하 역사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는 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 계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 흥보법 장군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편웨한 인사 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립운동사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식에서 "지금 대한

민국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흥보법 장군의 흉상을 치운다면, 육사의 독립영웅심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는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무도하고 퇴행하는 이 정권의 잘못을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며 "심판해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대리인으로 정신 차리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을 걸고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흥보법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조되는 장면을 부각해 이념·역사 논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를 주축으로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부상했다"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가문화 행위로, 민주당이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에 전면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송원철 기자

김무성 “與, 유승민 포용해 총선서 수도권 도전 기회 줘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을 포용해 수도권에 원하는 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유 전 의원이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인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유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당시 당 대표로 투톱을 이뤘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

표 등으로 활동할 당시 측근으로 꼽혔지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함께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다.

6선 의원 출신인 김 전 대표는 자신이 과거 두 차례 당선됐던 부산 중·영도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 결심 배경을 문자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혐오와 분노에 찬 국민들의 비난을 목격했다"면서 "도저히 변호할 수 없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 김원철 기자



발언하는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금태섭 신당, 제3지대 통합정당 띄울 실무협의기구 제안

새로운선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친 상태다. 금 공동대표는 최근 기본소득당 등이 범야권에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해킹"이라고 비판하며 "그 누구의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가짜 제3지대'와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주 공동대표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각 세력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고 적어도 설을 전후해서는 통합정당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선택은 제3지대 통합정당에 제안하는 최소강령을 먼저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최소강령은 통합정당을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양극화, 인구위기, 기후위기, 저성장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를 바꾸는 문제해결 연합"을 표방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하고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해 검찰 수사 통제권은 복원하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자는 내용도 들어갔다.

/ 안정순 기자

건설이 만든 금융
www.cgbest.co.kr

Moody's A2
Fitch Ratings A
A.M. Best A+

대한민국 건설산업 더 높이, 더 멀리

건설을 든든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건설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건설을 바랍니다. 일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내일을 보증합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버팀목

건설공체조합은 지난 59년간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철도·공항 등 공공시설부터 주택·공장·오피스빌딩 등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삶의 터전이 적기애에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건설보증과 공제(보험)사업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상담 1588-1444

공제 가입문의 02-3449-8946 건설회관 임대문의 02-3449-8686

건설경영연수원 043-850-4523 세종필드골프클럽 044-861-5678

CC 건설공체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與 “어르신 1천만시대 정책지원 강화”…총선앞 노인표심 잡기

대한노인회와 간담회…“생활밀착형 정책 확충해 총선 공약 반영”



국민의힘, 대한노인회와 간담회

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연륜을 사회 발전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생산성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닦으신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고령층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확충해나가겠다"며 올해 총선 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 박종수 기자

이준석, 이낙연과 연대에 “현실론 넘는 파격 있다면 가능할수도”

“낙준연대’는 멀칭 같아…‘리쌍 브라더스’ 어떤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7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들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낙준(이낙연·이준석) 합당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실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낙준연대의 성공 조건은 "파격"이라며 "누군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낙준 연대'라는 세칭에 대해 "멀칭에 가깝다고 본다"며 2명의 이(李) 씨라는 뜻의 '리쌍 브라더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좋은 명칭을 가지고 그걸 유도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 닫아놓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3지대 세력의 연대를 두고는 "국민이 바라보는 큰 덩어리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정의당 내 노선 갈등으로 인해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과 보수 정당에서 보수 개혁을 위해 밖에 나와 있는 세력, 이 두 가지"라며 "너무 다양한 주체가 나서면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 개별 주체 모두가 빛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두 세력 간 동일 비율 합당 추진에 대해선 "내부 구성원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 홍순천 기자

신생아 암매장한 엄마 징역 7년 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땀을 덮밥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A(45)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히려 양형이 A씨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신생아 땀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

죄에 걸맞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에 경기도 김포시 덮밥에 땀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11살인 아들 C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땀을 암매장했으며 이후 땀의 배냇저고리와 걸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키웠다.

/ 송진영 기자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 모습

제주4·3 단체 “전광훈 망언, 퇴출해야”…법 개정 요구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

민예총은 16일 공동성명을 내 “전광훈이 15일 제주의 한 행사에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제주는 일본에 속하거나, 공산주의 독립국이 되거나, 북한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제주4·3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편웨이”라고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는 15일 오후 1시 제주시에 있는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초청 제주 애국 국민대회’에 참석해 강연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거나 제주도는 돈에 약하다는 등의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극우 선동이고, 정치적 혐오를 기반으로 한 하

류 극우 정치꾼의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류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제주4·3 왜곡 편웨이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며 “제주4·3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반 사회적, 비인간적 모욕과 망언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황순길 기자

검찰,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발견된 마약

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불법 활동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과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

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 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이는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서정민 기자

부산항 화물선에 코카인 100kg 발견, 잠수부

투입해 압수…해경 “마약 반입 경로 조사”

부산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오후 3시 35분께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국내 선적 7만t급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 100kg를 적발해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달 초 브라질의 한 항구를 출항해, 싱가포르, 홍콩을 경유해 부산신항에 입항했다.

선적검사를 진행하던 중 선박 바닥 씨체스트에 마약류 의심 물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다.

씨체스트는 선박의 바닥 면에 위치한 메인 엔진 냉각을 위한 해수 흡입구다.

해경은 잠수부를 투입해 씨체스트를 수색해 검은 가방 3개를 발견했다.

검은 가방에는 마약 의심 물질이 약 1kg씩 100개로 나눠서 숨겨져 있었다.

해경이 간이시약을 이용해 검사한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 검사를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승선원을 대상으로 마약 반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 장수경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8천만원 손댄 직원 적발



강원랜드 직원이 카지노 입장권 판매 대금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랜드는 지난 14일 카지노 입장권 발권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카지노고객팀 소속 30대 A씨가 판매대금 8천만원을 훔친 사실을 자체 적발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 9천원을 내야 한다. 강원랜드는 하루 동안 받은 입장료를 금고에 보관했

다가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모아둔 금액을 입금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 대금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강원랜드 관계자들이 기숙사에 있는 A씨를 찾았으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입장권 판매대금이 절취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즉시 개선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채형문기자

200만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
의사부족
해소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지역공공
의료사령탑
역할 수행

생명의 땅으로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시진핑 “대만 인민 마음 얻고 대만 애국통일 세력 강화하라”

中공산당 이론지 글 통해 대만 대선 첫반응…‘여소야대’ 대만 국회 등 친중세력 공략 관측



라이징더 총통 당선 전하는 대만 신문

대만 대선에서 독립·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징더가 당선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독립’ 반대를 재천명하면서도 대만인의 마음을 얻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피력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대선 이후 시주석의 대만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수(求是)에는 ‘신시대 당 통일전선공작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종합적인 이행에 대한 중요한 사상’이라는 제목의 시주석 글이 실렸다.

시주석은 글에서 “공산당은 애국 통일 세력을 강화해 홍콩·마카오·대만 인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홍콩·마카오·대만과 해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잘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애국 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그들의 국가 인식과 애국심을 고양하라”며 “대만의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라”라고도 주문했다.

시주석의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하고 조국과의 완전한 통일을 촉진하라는 언급은 친미 독립 성향 라이징더 총통 당선인이 전날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대만은 ‘세계의 대

만’이라며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원(支持·지지나 지원의 의미)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주석이 한 “대만 인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대만의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라”는 지시는 향후 중국 당국이 중국 당국이 친중 성향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등의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대선은 이겼지만, 의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소야대 상황이 된 점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총통 선거와 같이 치러진 113명 입법위원(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51석에 그쳤고, 친중 국민당이 52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다. 무소속 2명도 국민당 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성향 민중당이 8석을 차지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만큼, 중국 측이 민중당 의원들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라이징더 당선인이 이를 차기 민진당 정부와 대

화할 가능성은 차이잉원 현 총통 재임 시기보다 훨씬 낮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한 뒤 “대신 중국 관리들과 대만 신임 국회의원들 사이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 정부 고문인 정용넨 홍콩중문대 선전 캠퍼스 교수도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대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으면서 ‘살라미 전술’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살라미 전술은 이탈리아식 드라이 소시지 살라미를 얇게 썰듯이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 교수는 중국이 대만 젊은이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젊은이들은 대만 미래 정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세력”이라며 “젊은 대만인들은 중국 정체성이 악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독립을 주장하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샤오후수, 더우인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만 젊은 이들에게 개방해 정체성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들이 본토로 유학이나 취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단결해서 세상을 바로잡고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죽음과 고통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America first)에 두고 미국을 다시



미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 승리 파티장에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공화 경선 ‘첫승’ 트럼프

“모두가 단결할 때…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다시 위대하게 만들것”

재집권 시 국경단속 강화 방침 밝혀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1기에 불법입국자를 막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국경을 봉쇄할 것”이라며 재집권 시 남부 국경을 통한 미국 불법 입국자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입국자에 섞여 “많은 테러리스트가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나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CNN 집계에 따르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51.1%의 득표율로 론 디센티스(21.2%)와 니키 헤일리(19.0%)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 송원기 기자

북러 외교장관, 한반도 문제 논의…“미 정책이 긴장 높여”

라브로프 “미, 한반도 위협…조건없는 협상 지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북러 협력과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회담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외무부 리셉션하우스에서 최 외무상과 회담을 시작하며 “오늘 북러 협력 확대를 포함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국제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정책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어떤 조지도 포기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늘 지지했다”며 “러시아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관련 제안을 제출했고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을 통해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작업을 예비



최선희 북 외무상-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회담

적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고히 옮겨세우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중대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북러경제공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문제들이 뚜렷한 결과를 내는 것은 북러 관계의 역동적인 발전을 보여준다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절실히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브로프 장관의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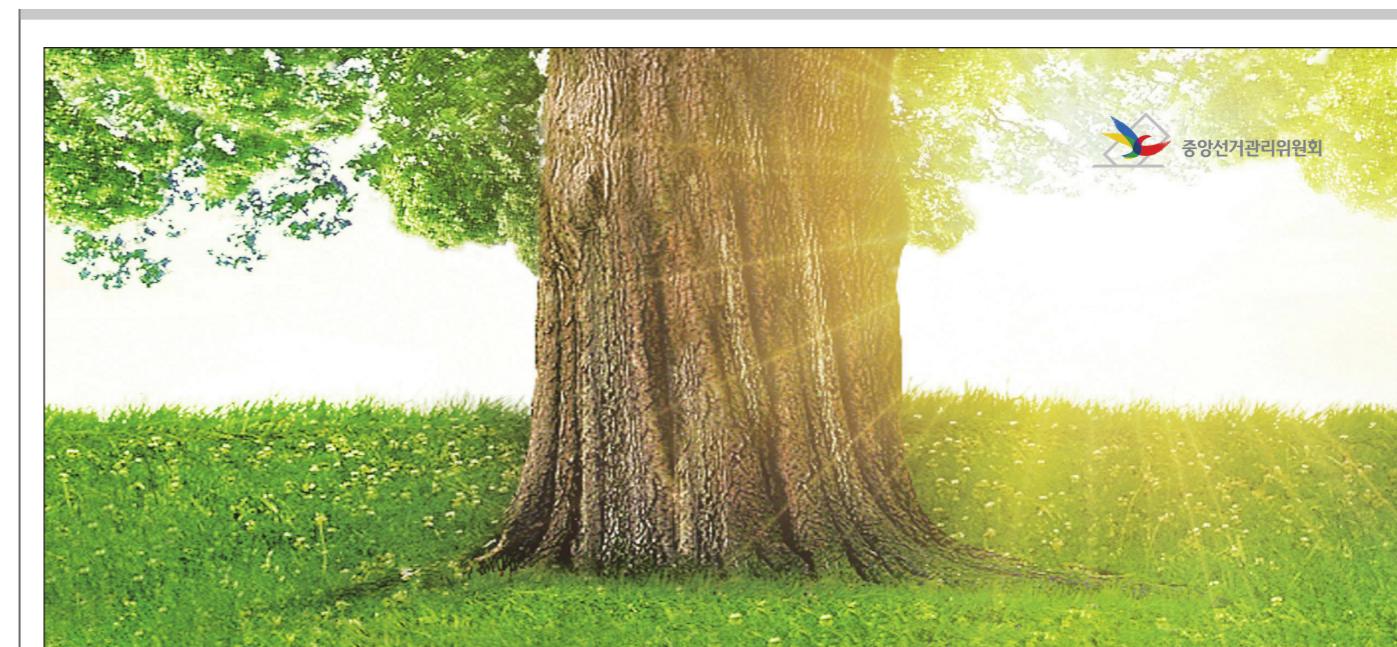
한 방문을 언급하며 “두 나라 외무상이 자주 만나며 유대를 쌓는 것은 쌍무 관계가 두 나라 수뇌부의 의도에 맞게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부터 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로(북러) 협력을 더욱 높은 단계로 옮겨세우고 두 나라 인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편의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브로프 장관의 북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크렘린궁으로 이동해 협의 내용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강민수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은 비용을 올창한 숲을 이루듯이
건전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액은 25%까지)
-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조언과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세청 112)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 다액 이하
-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日도쿄전력 “노토강진, 후쿠시마 사고 원전 폐기 예상 없어”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일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날 개최한 외신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서 노토반도 강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 계획 변경에 관한 질문에 “현시점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 3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원전에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이 쓰나미(지진해일)에도 어느 정도 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노토반도 강진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발생한 점

을 고려해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원전을 2051년 무렵까지 폐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고 원전에 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이 난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올해 3월 이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의 핵연료 잔해 반출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반출용 로봇 팔을 투입할 배관에 예상하지 않았던 퇴적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최근 이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은 퇴적물 제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핵연료 잔해 반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 서정미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연금, 어디서 할까?”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든 연금 신한에 물어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 | | | | |
|--|--|-------------------------------|--|
| · 23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최초 업무협약 체결 ·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 퇴직연금 중요 알림과 정보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카카오톡 전용채널 | · 신한은행 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 [신한 연금라운지] 신한은행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연금 상담 전용 공간 |
| ·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으시라고 연금수령 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 개인형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 일산: 11월 22일 오픈 (031-812-3655, 주엽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4층) |
| · 평생소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SOL 연금라운지 | · 퇴직연금의 종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종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 노원: 11월 27일 오픈 (02-6224-5499,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3층) |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개인형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의 종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종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양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5354-1호(2023.11.17~2024.8.30)

‘블록딜’ 삼성家 세 모녀, 지분평가액 상승…상속세 부담은 여전

삼성전자 주가상승 덕 봤지만 상속세 계속 내야…주식담보 대출도



왼쪽부터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삼성가(家) 세 모녀가 최근 상속세 납부에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불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 뒤에도 여전히 여성 중 주식평가액 최상위를 유지했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오너 일가 소속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여성 417명 중 상위 50명의 주식 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들 50명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24조1천975억원으로 지난해 1월 12일(24조1천275억원)보다 약 0.3% 증가했다.

상위 1~3위는 삼성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차지했다. 세 사람의 지분 합산 평가액은 18조7천967억원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개장 전 블록딜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2조7천억원 상당을 매각했으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

로 평가액은 작년 1월 12일 대비 증가해 순위 변동이 없었다.

1위인 홍 전 관장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0.32%(1천932만4천106주)를 매각한 뒤에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지분 가치가 작년 대비 1.1% 증가한 7조3천963억원으로 집계됐다.

2위인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240만1천223주(0.04%)와 삼성물산·삼성 SDS·삼성생명 일부 지분을 처분했으나, 이달 12일 기준 보유 주식 가치(6조334억원)는 작년보다 2.5% 늘었다.

삼성전자 지분 810만3천854주(0.14%)를 매각한 이서현 이사장의 보유 지분 전체 가치는 작년 대비 4.2% 증가한 5조3천669억원으로 상승했다. 이로써 이 이사장은 3위를 유지했다. 이들 모녀의 지분 매각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유족들이 내야 하는 12주원 규모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작년 5월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주식 담보대출도 받았다.

전 세계적 금리인상 기조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었던 미술품 ‘이건희 컬렉션’은 국가기관에 기증하며 사회에 환원했다.

이들에 이은 4위는 SK 일가로 SK㈜ 지분 6.6%를 보유한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대표이사장이다. 최 이사장의 지분 평가액은

작년보다 14.2% 감소한 7천876억원으로 집계됐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는 지난해 대비 4.3% 줄어든 5천60억원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다.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4.4% 감소한 3천498억원으로 8위, 차녀 구연수 씨는 860억원으로 19위였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3천929억원으로 6위, 모친인 이명희 회장이 3천545억원으로 7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들 모녀의 합산 지분 가치는 작년보다 29.6% 감소했다.

/ 송원기 기자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시연

지능형 CCTV를 성장산업으로 차세대 반도체·운영체계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CCTV를 비롯한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물리보안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 기술을 활용해 재난, 재해, 범죄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지능형 CCTV와 생체인식 등 관련 제품·설루션과 출동 보안 등의 서비스로 구분된다.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선언한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관련 과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국산화된 ‘CCTV 반도체 칩(SoC)’을 사용해 지능형 CCTV를 제조하는 기업 수를 종전 10개 사에서 40개 사로 늘리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후 세계 SoC 반도체 시장의 신기술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3세대 반도체 칩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능형 CCTV 설루션과 생체인식 등 물리보안 성능시험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그중 지능형 CCTV 성능 시험 인증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설루션이 영상 속 이상 행동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최근 인증 분야를 ‘일반’과 ‘안전’ 분야로 개편한 바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군중 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인증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생체 인식 성능시험 분야도 기존 지문과 안면 중심에서 정맥과 흉채 등으로 확대, 인공 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생체 데이터를 34만 건 이상 구축한다. / 노승민 기자

기아, 태국 판매 자회사 출범

현지 조립공장 설립은 백지화

기아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연합) 공략을 위해 태국에 판매 자회사를 설립한다. 다만 현지 공장 설립계획은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는 오는 31일 영업과 판매, 마케팅, 애프터서비스(AS) 등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태국 판매 자회사를 공식 출범시킨다.

다만 현지에 설립하려 했던 생산공장은 최근 태국 투자청(BOI)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백지화했다. / 박소희 기자

지회됐다.

애초 기아는 태국 동부 라용주에 연산 25만대의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이 지역은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BYD(비야디)가 첫 해외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곳이다.

앞서 2030년까지 자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태국 정부는 현지 생산계획을 제시한 업체에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5만바트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박소희 기자

조성경 과기부 차관 법카 의혹에 연구노조 “사퇴해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학기술계 노조가 조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현장 카르텔을 지적한 조 차관이 위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법적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실제 음식 가격과 인원이 신고 내역과 맞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조성경 1차관

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는 조 차관이 연구현장은 카르텔로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연구현장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넉넉한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차관이 앞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우려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에게 예산 확보 개별 로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특정 사안을 부풀려 카르텔처럼 발표했다며 이미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노조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이미 차관 자격이 없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며 “공직자로서 부정행위를 자행한 조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수영 기자

R&D 예타 신청, 부처 신규 가용예산 범위내로 한정

과기정통부, ‘국가 R&D사업 예타조사 제도 개편안’ 발표



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R&D 예타 요구 규모를 부처별 신규 가용예산 범위 내로 한정하고, 부처는 이를 고려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 연간 예타요구 계획을 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모 부처는 지난해 신규 가용예산이 3천407억원임에도 예타 착수 요구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등 예타가 부처 R&D 규모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

여기에 예타 신청 부처는 자율과 책임 하에 실천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예타 대상 선정에서 도전·혁신형 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은 예타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업 기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개

발 활동’을 명시해 도전적 R&D의 예타 면제 근거도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보다 작은 R&D 사업을 통합하거나 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매번 예타를 적용하는 대신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하고,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나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맞춰 예타 윤용지침과 총괄지침을 개정해 3월 중 적용하기로 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고 말했다.

/ 민성호 기자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까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약속 DB손해보험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2024년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사업권자로 선정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1·2여객터미널 내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은행 업무 및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KB국민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객만족도 1등에 맞는 품격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OPEN



* 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2개의 영업점과 11개의 환전소 및 15개의 ATM을 운영합니다

 KB국민은행

“2040년 부산항은 물동량 3천700만개 세계 3대 항만으로”

부산항만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서 부산항 미래상 발표

2040년 부산항은 연간 20피트 컨테이너 3천700만개를 처리하는 세계 3대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하고 부산항 미래상을 발표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040년 부산항은 신항과 진해신항 개발을 모두 마치고 물동량 3천700만개의 세계 3대 항만이자 세계 2대 환적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항만과 가덕신공항, 내륙 운송을 연계하는 트라이포트 거점 복합물류항만으로 운영되고, 인공지능(AI)과 자율운항, 친환경연료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질 친환경 종합 서비스 항만 기능을



부산항만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

하게 된다.

이와 함께 4차산업 기반 기술로 항만운영의 효율성, 정확성,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항만의 위상도 갖춘다. 북항지역 재개발을 마무리하면서 신해양경제를

이끌고, 감천항과 다대포항에 비즈니스 및 해양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등 가치창출형 도시항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 항만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생태

계 강화, 연구개발 지원 등 항만물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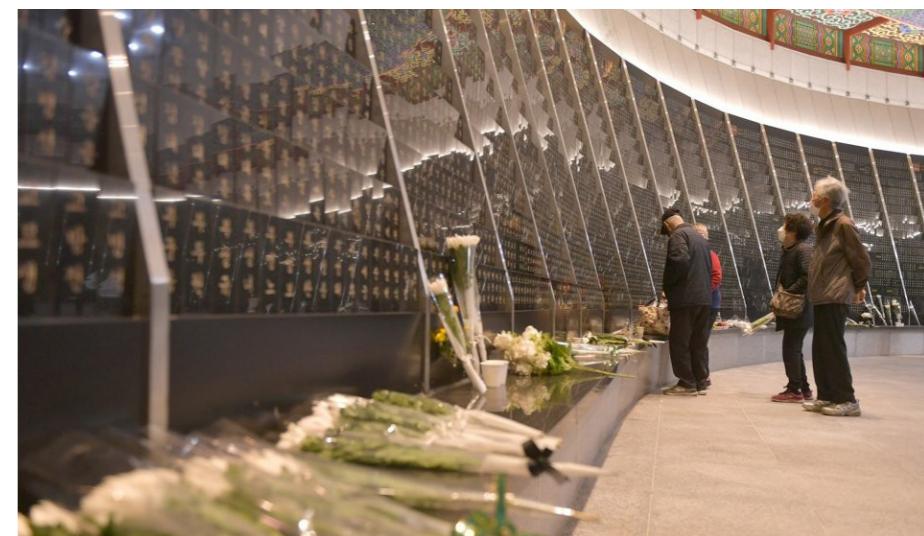
성장에도 앞장서게 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부산항의 미래상을 위해 ‘초연결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새로운 비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시대 항만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한다.

강준석 BPA 사장은 “지난 2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동화 하역장비 등 첨단 스마트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 해외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환적거점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제주4·3 위폐봉안실 찾은 유족들

제주4·3 이후 폭발물에 숨진 어린이 2명 희생자 결정

제주4·3 사건이 끝나고 2년 가까이 지나 불상의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 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을 포함한 54명(사망자 31, 행방불명자 20, 수형인 3)을 지난 11일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했다.

제주4·3중앙위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면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어린이가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속령 해제까지)을 2년이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사망

을 야기한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 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재조사를 토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번복했고 이번에 제주4·3중앙위도 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제주도는 제주4·3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이를 2명을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 판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4·3중앙위는 이와 함께 수형인 3명과 수형인 2명 중 행방불명된 2명에 대해 희생자로 추가 결정해 향후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절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인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이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 백준석 기자

충북 일반고 평준화지역 27개교 학생 배정 전산추첨



일반고 평준화 전산추첨

충북도교육청은 16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윤건영 교육감과 교사, 학생,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전형(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전산 추첨을 했다.

대상 학교는 청주시 19개교(남학교 6개교, 여학교 5개교, 남녀공학 8개교), 충주시 6개교(남학교 2개교, 여학교 2개교, 남녀공학 2개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2개교(남녀공학 2개교)이다.

추첨은 학생들이 사전에 제출한 학교 지망 순위(청주 7지망, 충주 4지망, 음성·진천 2지망)를 반영해 전산시스템으로 진행됐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와 특례입학자를 대상으로 한 정원 외 선배정, 체육특기자·자체부자유자·소년소녀 가정 구성원·다자녀가구 등 정원 내 선배정, 일반 지원자 순서로 추첨이 이어졌다.

이번 추첨에서 지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임의배정 학생은 청주와 음성·진천에서 각각 131명, 1명이 나왔다. 충주는 임의배정 학생이 없었다.

학생 개인별 학교 배정 결과는 18일 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중학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오문섭 기자

LH,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첫 수소도시 조성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을 구축한 도시를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오는 2026년 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및 그린수소 출증시설, 연료전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등을 설치한다.

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남양주시는 사업 관리,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함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수소 기반 도시를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채연주 기자

“특별자치도 출범식 준비 이상무”…전북도, 민·관 합동 점검



전북도는 오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앞두고 본행사가 열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았다.

이들은 본행사가 열리는 한국소리문

언화전당 모약당의 무대 구조물, 전기, 화재설비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주최 측에 보완을 요구했다.

17일 전야제가 열리는 도청 야외광장의 안전 점검에는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직접 참여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파악했다. 불꽃놀이, 드론쇼 등의 행사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가정하고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도는 출범식 본행사와 전야제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 안전관리 요원과 구급·구조 요원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임 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

범을 알리고 축하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주영 기자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미음을 보냈습니다. 고향에게 정성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감세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장을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을 담장을 제공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도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 오프라인: 전국 협업은행·농축협
※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관)



우리금융그룹

새
해
아
침
에쓰
는
편
지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그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 많이 웃게 해주세요”
“우리 민서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금융그룹도
우리를 위해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사장님들이 더 자주 웃게 해주세요”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북도, K-푸드 세계화 시대를 연다…올해 2천800억 투입

경북도는 올해 농식품산업 핵심 전략을 'K-경북 푸드 세계화'로 정하고 2천 853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 유통시설 첨단화,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스마트 농업 인재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지역 식품의 세계화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민간 주도 투자를 활성화해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또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딸기 등 항공 품목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수출 스타 상품 발굴,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해외 판촉과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영국서 안동소주 홍보·판촉 행사

지역 과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지역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등으로 유통시설을 자동화

하고 약정 출하 확대, 통합브랜드 육성, 안전 농산물 공급 기반 구축 등에 나선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선진 교육과 농업계

고 졸업생 영농 정착 및 창업비용 지원,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고부가 기술 농업인 육성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인재도 키운다.

경북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9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농특산물 공공 쇼핑몰인 '사이소' 매출은 455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류열풍에 따른 농식품 수출 증가와 농식품산업 성장 추세를 보면 지금이 농식품 세계화를 위한 적기"라며 "농업 생산성 향상,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 농업 대전환으로 경북 푸드 세계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훈 기자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과 면담하는 김동연 지사

서울시 고액체납 강력대처…‘탈세 암행어사’ 38징수과 떴다

연초부터 작년 1천301억 징수 투입…가택수색·명단공개 행정제재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연초부터 투입해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市稅) 고액체납 9천428건, 1천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이미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한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체납자 1천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

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A 법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2억원이다.

A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로, 현재 담당 조사

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조사해 주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 최고액은 이모(34)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다.

이씨는 전자도박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주적 조사 중이다.

시는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로 전국

최초로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8점 등 21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체납 시세 1천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 단속을 통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천4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영치 예고를 통해 98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상속재산이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숨긴 부동산을 채권자인 시가 대신 등기하는 대위 등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압류한다.

/ 유민주 기자

다보스포럼 참가 김동연, 세계 유니콘 기업 대표들과 협력 논의

경기도는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

동연 지사가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 세계 유명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지사는 포럼 개막일인 15일 오후(현지시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

트업 기업) 대표자 90여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로, 참가자 가운데 김 지사는 유일한 정부 인사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 스타트업 대표 20여명과도 개별적으로 대담했으며, 챗GPT 개발자로 잘 알려진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샘 알트만의 한국 방문 때 경기도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참석에 앞서 김 지사는 다보스 콩гр레스 센터에서 암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UAE 기업 간 디지털 분야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AI(인공지능), 펍테크 등 주요 혁신산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미래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 교류를 위한 실무자원(워킹리벨)의 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암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장관은 “지난 해 11월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했다.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만들자”고 화답했다.

/ 권도현 기자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음식점 증축은 생태계에 피해, 불허해야”

환경단체 회견…주남저수지민관협의회 효용성 의문도 제기

경남 창원시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인근 한 음식점 증축을 수용하는 건축 변경 의견을 내자 환경단체가 생태계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는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남저수지 연접지역을 불야성으로 만드는 건축인허가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 있을 수 없다”며 “창원시가 주남저수지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난개발의 면죄부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 이익 사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시 조례에 따라 활동하는 기구다.

최근 협의회는 주민대표 4명과 농어촌공사 관계자 1명, 공무원 3명, 환경단체 소속 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주남저수지 인근 마을에 있는 1층짜리 음식점을 2층으로 증축하는 건축 변경 건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2016년 제정된 ‘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남저수지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지역이 '제외 지역'으로 설정된 점과

1종 주거지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증축 관련 내용은 찬성하되 주변 환경 오염 저감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환경단체 관계자 1명은 이 안건에 대해 생태계 피해 등을 이유로 증축 변경안을 불허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창원시는 이 회의에서 찬성과 반대의

견을 종합해 건축 변경에 대한 건축협의 의견을 의창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과거 건축 변경 인허가 이후 생긴 주남저수지 주변 커피숍으로 인해 생긴 철새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남저수지 활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심진욱 기자

‘화산水’ 제주삼다수 물맛, 7년 연속 국제기관 공인



제주삼다수가 국제식음료품평원(ITI)으로부터 최고의 물맛을 인정받았다.

16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삼다

수는 국제식음료품평원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식음료 미각 평가 기관이다. 매년 미각 전문가들이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우수한 수질과 맛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현준우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리성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하고 싶은 거 다~해 연금 들고 나서

즐기는 인생엔 연금이 기본이니까!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연말정산도 돌려받는 지금이
연금하기 좋을 때다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하면
평생 수수료 면제
(퇴직금/개인납입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KB증권 IRP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469호(2023년 12월 8일~2024년 12월 7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하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구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펀드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는 별도 발생됩니다.

KB증권

MLB닷컴 “김하성, 팀에 엄청난 가치…트레이드 기준 높아야”



김하성과 보하르츠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미국프로야구(MLB) 트레이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MLB닷컴은 16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을 트레이드할 가능성을 분석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우선 MLB닷컴은 샌디에이고가 내야진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하성 트레이드에 나설 수 있다고 짚었다.

MLB닷컴은 “샌디에이고는 내야 옵션이 넘쳐나고, (2루수 자원인) 제이크 크로넨워스는 1루에 기용되면서 제

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 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샌디에이고 2루수로는 김하성이 주전을 맡는 가운데 백업 자원으로 크로넨워스, 매슈 배튼, 투쿠파카 마르카노, 에기 로사리오 등이 있다. MLB닷컴은 “김하성 트레이드는 다른 포지션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2루수 자리가 조금 약해질 순 있어도 (그 정도 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성이 2024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가 된

다는 점도 트레이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어차피 내년 결별할 수순이라면 트레이드 수요가 최고점에 이른 현시점에 거래하는 것이 샌디에이고로선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골드 글러브(유틸리티 부문)를 받은 김하성의 올해 연봉은 700만달러에 불과하다. 내야수 보강이 시급한 타 구단으로선 구미가 당기는 매물이다.

MLB닷컴은 “김하성이 FA가 되기 전에 (샌디에이고와) 연장 계약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크로넨워스는 계약이 7시즌 더 남아있고 (유격수) 산더르 보하르츠도 2루수를 뛸 수 있다는 점은 김하성의 계약 연장 가능성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다만 MLB닷컴은 김하성의 높은 가치에 걸맞은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MLB닷컴은 “김하성은 지난 시즌 부상 이탈로 생겼던 내야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줬고, 샌디에이고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트레이드하는 것은 팀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하성이 갖는 엄청난 가치를 고려할 때 (트레이드)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해야 한다”며 “샌디에이고는 (타 구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년간 임팩트 있게 뛸 수 있는 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준용 기자



제11기 대주배 예선전 개막

최강 시니어 프로기사는 누구일까 제11기 대주배 개막

반상의 최강 시니어 프로기사를 가리는 대주배가 열한 번째 열전을 시작했다. 제11기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은

16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사흘간의 예선전에 들어갔다.

18일까지 이어지는 예선전에는 한국기원 소속 45세 이상(1979년 이전 출생자) 남자 기사와 30세 이상(1994년 이전 출생자) 여자기사가 75명이 참가해 12장의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12명의 예선 통과자가 결정되면 전기 대회 우승자인 유창혁 9단과 준우승자 권효진 8단, 후원사 시드 2명 등이 본선 16

/ 박진수 기자

한국 태권도, 파리올림픽에 최소 3명, 최대 4명 출전…역대 최소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권도 대표팀의 윤곽이 잡혔다.

한국은 파리 올림픽에 최소 3명, 최대 4명의 선수를 파견할 예정이다. 국가별 출전 선수 제한 규정이 사라진 뒤 역대 최소 인원이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16일 “파리 올림픽엔 남자부 2명, 여자부 1명이 출전하고, 대륙별 선발전을 통해 여자부 1명이 더 출전할 수 있다”며 “대륙별 선발전에는 오늘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의 결과 여자 57kg급 대표 선수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태권도는 남자 58kg급·68kg급·80kg급·80kg초과급, 여자 49kg급·57kg·67kg급·67kg초과급으로 구분한다.

올림픽 태권도 종목은 메달이 특정 국가로 쏠리는 것을 막고자 2012 런던 대회 까지는 국가당 남녀 2체급씩,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제한됐고 2016 리우



훈련하는 태권도 대표팀

데자네이루 대회부터 체급당 한 명씩 최대 8명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은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5명, 2020 도쿄 대회에 6명이 출전했다.

한국은 파리 대회도 도쿄 대회 수준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림픽 출전권은 세계태권도연맹(WT) 올림픽랭킹(체급별 1~5위)과 WT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랭킹, 대륙별 선발전 등을 통해 배정한다.

한국은 올림픽 랭킹으로 남자 58kg급과 남자 80kg급, 여자 67kg초과급 등 단 3개 체급만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고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에선 단 한 장

도 따지 못했다.

남자 58kg급은 장준(한국체대·3위)과 박태준(경희대·5위)이 WT 올림픽 랭킹 5위 안에 들어 올림픽 출전 요건을 충족한다. 두 선수는 다음 달 1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평가전을 펼치고, 승자가 파리 올림픽에 나서게 된다.

남자 80kg급에선 서건우(한국체대·4위), 여자 67kg초과급에선 이다빈(서울시청·3위)이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은 대륙별 선발전을 통해 1장을 더 딸 수 있다.

대륙별 선발전은 남녀 각각 2장 미만의 출전권을 딴 국가만 출전할 수 있는데, 한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여자부 1개 체급에 출전하게 됐다. 한국 태권도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기 위해 대륙별 선발전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여자 57kg급 올림픽 티켓을 도전하기로 했고, 대륙별 선발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다음 달 1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뽑기로 했다.

/ 노건우 기자

오승환, 드디어 도장 찍었다 삼성과 2년 22억원에 계약

연봉은 전액 보장 금액이다. 성적에 따른 옵션은 없다.

다만 구단 셀러리캡(연봉 상한제) 문제로 오승환의 내년 연봉은 4억원, 내후년 연봉은 8억원으로 조정됐다.

삼성 관계자는 “오승환이 셀러리캡으로 인해 양보를 많이 했다”라고 전했다.

이종열 삼성 단장은 “올해 투수진 구성에 화룡점정을 찍게 됐다”며 “협상 과정에서 최선의 길을 고민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팀 구성을 위한 구단의 행보를 이해해주고 따리준 오승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 정성균 기자

SAMSUNG

함께라서
용기 나는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새롭게 꿈꾸고
힘차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의 2024년을
삼성이 응원합니다



'성난 사람들' 에미상 휩쓸었다...작품상·남녀주연상 등 8관왕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에미상 작품상 수상

한국계 감독과 주연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 8관왕을 거머쥐었다.

'성난 사람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미니시리즈·TV영화(Limited Or Anthology Series Or Movie) 부문 작품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이에 더해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감독상과 작가상을 받고, 한국계인 스티븐 연이 남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베트남계 배우 앤리 왕은

이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캐스팅상과 의상상, 편집상까지 이날 '성난 사람들'이 받은 상은 총 8개다. 후보에 오른 11개 부문 가운데 남녀 조연상과 음악상을 제외한 모든 상을 휩쓸었다.

각본과 연출을 모두 담당한 이 감독은 작품상 수상 소감에서 "작품 초반 등장인물의 자살 충동은 사실 제가 겪었던 감정들을 녹여낸 것"이라며 "이 쇼를 보고 자신이 어려운 경험을 털어놔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스티븐 연은 경쟁자였던 '블랙 버드'의 테런 애저턴, '다마'의 애반 피터스, '위어드'의 대니얼 래드кли프 등 배우들을 제

치고 남우주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스티븐 연은 '성난 사람들'로 골든글로브, 크리틱스초이스상에서도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스티븐 연은 먼저 '성난 사람들'에 함께 출연한 동료 배우들에게 감사를 드러낸 뒤 자신이 드라마에서 연기한 인물 대니를 향한 감정

을 털어놨다. 스티븐 연은 "솔직히 대니로서 살아가기 힘든 날들도 있었다. 대니를 몇대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싶은 날도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날 앤드류 쿠퍼(포토그래퍼)가 내게 '대니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에이미 라우를 연기한 배우 앤리 왕 역시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을 통해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 가족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아시아계 배우 두 명이 동시에 남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미상 6관왕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가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아시안 배우 최초로 드라마 부문 주연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앤리 왕이 아시아계 배우 최초

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대상에 해당하는 최고 영예 작품상(Outstanding Drama Series)은 HBO 드라마 '석세션'에 돌아갔다. 벌써 3번째 작품상이다. '석세션'은 회사 운영권을 두고 권력 다툼을 벌이는 미국 '콩가루 재벌가' 이야기로, 올해 총 27개 부문 후보로 올라총 6관왕을 달성했다.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작품이다. 운전 도중 벌어진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한 주인공 대니와 에이미의 갈등이 극단적인 싸움으로 치닫는 과정을 담은 블랙 코미디 장르다. 10부작인 이 드라마는 지난해 4월 공개된 직후 넷플릭스 시청 시간 10위 안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흥행뿐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배우들의 연기력을 인정받아 에미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3관왕에 올랐고,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여우조연상(마리아 벨로) 4관왕을 차지했다.

/ 오현성 기자



육군훈련소 훈련병 수료식을 마친 방탄소년단 RM과 뷔

BTS RM·뷔, 훈련소 마치고 이등병 달아 '최정예 훈련병' 선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과 뷔가 16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수료식을 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다.

육군에 따르면 RM과 뷔는 5주간의 제

식훈련, 정신교육, 구급법, 각계전투, 학생방 등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날 수료했다. '최정예 훈련병'에 선발된 이들은 수료식 행사에서 표창을 받기 위해 단상에 섰다. 육군훈련소 최정예 훈련병은 200명 중 5명 정도만 선발되며 포상휴가도 받는다.

특히 수료식에서는 RM의 영상편지도 공개됐다. 그는 자원해서 영상으로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대 자체를 장기간 미뤄왔고 나 이도 제법 좀 있는 상태에서 입대하다 보니 많은 것들이 두렵고 걱정이 됐었던 것 이 사실"이라며 "늦게 입대하는 바람에 같이 생활했던 생활관의 동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와 열 살 가량 차이 나는 어린 동기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 분단 국가이자 휴전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의 필요성, 기초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저에게는 육군훈련 소가 아니었으면 해보지 못했을 경험들이 아주 많았다. 특히 며칠 전에 완료한 야간 행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RM은 "밤새 전우들과 함께 행군을 하면서 힘들 때 별을 보고 함께 응원을 나누면서 말로만 듣던 그 전우애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며 "훌륭하신 간부님들과 분대장님들 덕에 굉장히 생소했던 많은 훈련들도 보람되고 재미있게 완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군 생활 속에서의 의의,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며 "모두가 사격술을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70여년간 대한민국에서 누려온 이 평화는 많은 분들의 송고한 희생과 노력,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서 앞으로의 남은 군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RM은 이번 주 중 자대에 배치되고, 입대 전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SDT)에 지원한 뷔는 3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은 후 군 복무를 시작한다.

/ 최경민 기자

'황야' 마동석 "같은 동작도 더 거칠게...새로운 액션 보여줄 것"

허명행 연출 데뷔작...마동석 "제가 겪어본 최고의 감독"

"액션에 관해서 허명행 감독과 저는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편하고 좋 은지 알아서 맞추는 사이죠. 액션에 있어서는 200% 케미(호흡)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 마동석은 16일 서울 동대문구 한 호텔에서 열린 영화 '황야' 제작보고회에 서 허명행 감독과의 호흡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이달 26일 공개하는 '황야'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 남으려는 사람들이 별이는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마동석은 고력의 사냥꾼 남산 역을 맡 아 특유의 맨손 액션부터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적에 맞선다.

그는 "자주 사용하는 주먹 액션에 권총, 산탄총, 칼 등 여러 무기를 사용하는 색다른 액션이 나온다"며 "허 감독이 액션을 다 디자인했는데 새롭게 보이는 액션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허가 된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성격을 띤 영화라 기존 액션보다 더 강도가 높은 연기를 소화했다.

마동석은 "같은 동작이라도 현실 액션보다 더 거칠고 세게 보이려 연출했다"며 "현실적인 액션은 진짜처럼 보이게 노력한다면 '황야'는 현실의 선을 넘어가는 새로운 액션을 보여드릴 것"이라 말했다.

허 감독과 마동석은 영화 '범죄도시' 시



질문에 답하는 마동석

리를 비롯해 여러 작품에서 무술감독과 배우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이 감독과 배우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감독은 "마동석 씨와 함께 제가 연

출할 시나리오를 전부터 개발하고 있었는데, 막상 연출 제의를 듣자 기쁘다기보다 정말 하는 걸까 싶었다"며 "무술감독으로 참여했을 때는 액션에 관해서 의견을 공유했다면 감독이 된 지금은 대사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새롭고 재밌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허 감독은 '황야'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후 이야기를 다룬 후속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황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작품으로 속편이 아닌 독립적인 이야기를 가진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의사인자 작품의 벌린인 양기수는 이희준이 연기한다. 이준영은 남산의 파트너 지완 역을 맡았고, 노정의와 안지혜는 소녀 수나와 특수부대 소속 중사 은호 역으로 출연한다.

/ 김지혜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이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24 갑진년,
하나뿐인 내 편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